

습원의 신의 소리가 들린다



두루미 서식 상황

두루미는 일본 외에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과 중국 동북부에 1,4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동부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으며, 두루미 종류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1952년 이후 매년 겨울에 서식 개체수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는데, 2013년도 조사에서는 1,450마리가 넘었습니다.

두루미의 사계절

3월 중순이 되면 구시로시 아칸초와 쓰루이무라의 먹이장에서 각지 습지대로 이동하여 갈대로 동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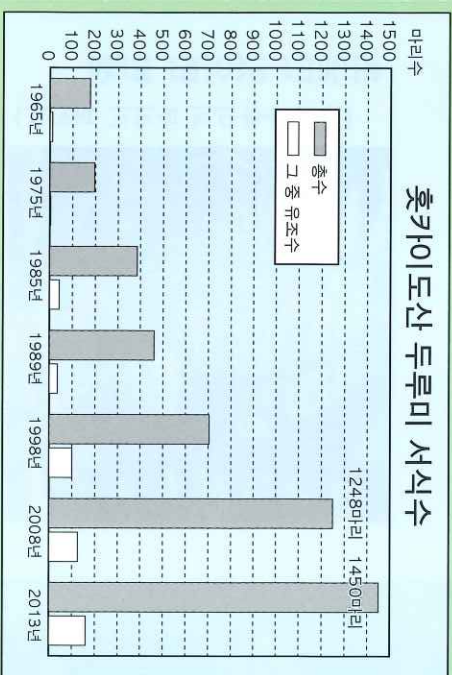
동지가 만들어지면, 길이 10cm정도의 알을 1개나 2개 낳습니다. 알은 부모가 교대로 품으며, 약1개월 뒤에 부화합니다.

새끼는 약100일이면 부모와 같은 크기가 되어 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두루미는 먹이장으로 모여 듭니다.

* 아이누어로 두루미를 표현하는 발음인 동시에 '습원의 신'이라는 뜻.

홋카이도산 두루미 서식수



T 구시로시 두루미 자연공원 ANCHHO



구시로시 두루미 자연공원 KUSHIRO CITY

우편번호084-0926 홋카이도 구시로시 소름오카112번지

TEL: +81-154-56-2219 FAX: +81-154-56-2216 [URL] http://kushiro-tanchho.jp



특별천연기념물

두루미

영어명 Japanese Crane/Red-crowned Crane
학명 *Grus japonensis*

예로부터 전해지는 옛날이야기에도 등장하는 두루미는 에도시대까지 각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개체수가 감소하여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4년, 10여 마리의 두루미가 구시로 습원에서 확인된 이래,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호활동이 추진되어 1952년 국가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루미 자연공원의 연혁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를 보호 증식하기 위해 1958년 8월, 구시로시 쓰루오카에 5마리의 두루미를 방목하면서 개장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두루미 생태에 관해 무지했기 때문에 암종모색 상태였지만, 10년 후에 자연 부화, 1970년에는 인공 부화에 성공한 이래, 많은 개체수를 증식해 왔습니다.

1987년부터 2년에 걸쳐 관리동 등의 전면 개축을 실시하여 강습실, 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견학은 물론 학술적 시설로서도 충실해졌습니다. 현재 약20마리의 두루미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구시로시 동물원에 이관되어 그곳의 두루미 보호증식센터와 함께 보호증식 사업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두루미들



TANCHO



조금만 있으면 탄생 (아기 두루미의 부리가 보인다)

안내

입장료

구분	금액	
	일반	단체 (15명 이상)
일반(고등학교 이상)	480엔	384엔
초등학교생 · 중학생	110엔	88엔

위의 입장료는 1인 1회의 금액이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구시로시 동물원(+81-154-56-2121)에 문의해 주십시오. ■유아는 무료입니다.

개장 시기

(여름철) 4월 10일~10월 14일 / AM9:00~PM6:00
(겨울철) 10월 15일~4월 9일 / AM9:00~PM4:00
■12월 31일~1월 3일은 쉽니다.

안내도

구시로시 동물원까지 6km, 자동차로 9분

